

Pedro ha terminado el trabajo no sabemos cómo: 단지 또 다른 절 생략의 예인가 아니면 비전형적 부가어의 존재인가?

정 원 석
경희대학교

정원석(2019), 「*Pedro ha terminado el trabajo no sabemos cómo*: 단지 또 다른 절 생략의 예인가 아니면 비전형적 부가어의 존재인가?」, 이베로아메리카연구, 30(1), 61-90

초 록 본 연구에서는 *Pedro ha terminado el trabajo no sabemos cómo*와 같은 스페인어 문장이 통사적으로 어떻게 도출되는지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Borgonovo(2011)에 따르면, 이와 같은 문장에는 등위접속(coordination) 또는 종속(subordination) 등과 같은 복문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어떠한 외현적인 표지도 겹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본적인 문장 구성 원리(compositionality)를 위배하여 마치 두 개의 주어와 두 개의 술어가 하나의 문장에 나타난 것처럼 보인다고 한다. 이에 따라 Borgonovo는 해당 문장을 단문으로 간주하고 문미에 출현한 *no sabemos cómo*를 일종의 부가어(adjunct)로 분석할 것을 제안한다. 하지만 본고는 위에 언급한 문장은 단일절(mono-clause)이 아닌 이중절(bi-clause)로 구성되어 있는 복문이며, 문미에 나타난 *no sabemos cómo*를 일종의 생략문으로 간주하고 절 생략(clausal ellipsis)의 대표적인 사례인 수문(slueicing)과 why-최소 공백화(why-stripping)의 결합으로 분석하는 것이 훨씬 더 간결하며 경험적 자료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적절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위에 언급한 문장에 출현한 *no sabemos cómo*는 후행절에 적용한 PF-삭제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며 여타 절 생략 구문들과 유사하게 분석된다.

핵심어 문장 구성 원리, 부가어, 생략문, 수문, why-최소 공백화

* 이 논문의 내용과 전개과정에 대해 귀중한 논평을 해준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I. 서론

Borgonovo(2011)는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스페인어 문장에 주목한다.¹⁾

(1) Pedro ha terminado el trabajo no sabemos cómo.

(Borgonovo 2011: 320, (1))

Borgonovo에 따르면, (1)에 제시된 문장은 마치 두 개의 주어와 두 개의 술어를 가진 단문처럼 보이며, 등위접속(coordination)이나 종속(subordination) 등과 같은 복문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어떠한 표지도 겹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고 한다. 만일 이와 같은 기술 내용이 사실이라면, (1)의 문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본적인 문장 구성 원리(compositionality)에 전혀 들어맞지 않은 아주 특이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모든 단문은 위의 원리에 부합하여 주어와 술어를 오직 하나씩만 가져야 하지만 (1)의 문장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²⁾ 그렇다면 과연 이와 같은 기본적인 문장 구성 원리를 위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문장이 통사 구조에서 어떻게 생성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Borgonovo가 기술한 바처럼, 실제로 스페인어에는 두 개의 주어와 동사를 가진 단문이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면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과 달리 (1)의 문장은 어떤 숨겨진 기저 구조(underlying structure)를 내포하고 있는 것일까?

이 논문에서는 (1)과 같은 스페인어 문장이 통사적으로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논의하고 과연 (1)에서는 두 개의 주어와 두 개의 술어가 단문에 나타난 것인지에 관해 연구하고자 한다. 먼저 II장에서는 (1)에 제시된 문장에 관하여

1) 필자가 문의한 원어민 화자들에 따르면, 비논항 의문사구 *por qué* 역시 (1)과 유사한 구문에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i) Ayer Juan compró otro coche más no sabemos por qué.

III.2장에서 본고가 제안하게 될 분석은 기본적으로 *cómo* 뿐만 아니라 *por qu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문장에서 등위 접속된 주어나 등위 접속된 술어가 나타난 경우는 모두 하나의 단일 성분으로 간주하기에 이와 같은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Borgonovo(2011)가 논의한 다양한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III장에서는 대표적인 절 생략(clausal ellipsis) 구문인 수문(slucing) 및 *why*-최소 공백화(*why*-stripping)와의 비교를 통해 (1)과 같은 문장에 내재된 구조의 본질을 파악하여 필자의 관점에서 본 통사적 분석을 제안하며 이에 수반되는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결론 및 본고가 제안한 분석이 해결해야 할 남은 과제들을 제시한다.

II. Borgonovo(2011)

1. 이동 분석 vs. 비이동 분석

Borgonovo(2011)는 (1)과 같은 스페인어 문장에 관해 적어도 두 가지 종류의 분석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한다.

첫 번째는 이동 분석(movement analysis)으로서 해당 문장은 원래 주절의 동사가 간접 의문문을 취하고 있는 기저 구조에서부터 일련의 통사적 이동 과정을 통해 도출된다는 것이다. 우선 표면적으로 (1)의 문장 맨 뒤에 위치한 의문사구 *cómo*의 출현과 관련하여 이동 분석은 주절의 동사 *saber*가 범주적으로 선택한 내포절 CP와 서로 병합하기 이전에 (2a)처럼 의문사구 이동(*wh*-movement)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2b)처럼 내포절 CP 내에서 단지 제자리 의문사구(*wh*-in situ)가 출현한 것인지에 대해 결정해야만 한다.

(2) a. *Wh-movement*

No sabemos [_{CP} cómo_i [Pedro ha terminado el trabajo t_i]]

b. *Wh-in situ*

No sabemos [_{CP} Pedro ha terminado el trabajo cómo_j]

먼저 (2a)의 구조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근거로는 Torrego(1984) 이후 학자들 사이에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주어-동사의 도치(subject-verb inversion) 현상을 꼽을 수가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적어도 유럽 스페인어에서는 별다른 지역적 또는 방언적인 변이 없이 주어-동사의 도치는 의문사 의문문의 형성

과정에서 필수적이다.

- (3) a. ¿Cómo ha terminado Pedro el trabajo?
b. *¿Cómo Pedro ha terminado el trabajo?

따라서 만약 (1)의 문장 도출에 의문사구 이동이 포함되어 있다면, 아래 (4)처럼 내포절 CP 내에서도 주어-동사의 도치가 일어나는 과정이 역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³⁾

- (4) No sabemos [_{CP} cómo [ha terminado Pedro el trabajo t_i]].

이러한 통사과정이 발생한 연후에 내포절 전체가 주절 앞으로 소위 나머지 이동(remnant movement)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도출되는 결과물은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⁴⁾

- (5) [Ha terminado Pedro el trabajo t_i]_j no sabemos [_{CP} cómoi t_j]

하지만 (5)와 같이 도출된 문장은 (1)과 비교했을 때 내포절 주어의 위치에 있어서 완전한 차이를 보인다. 즉, 전자의 경우 후치주어가 나타난데 비해 후자의 경우 전치주어가 나타나 있다. 따라서 의문사구 이동을 수반한 분석은 (1)에 제시된 문장을 있는 그대로 도출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1)의 도출 과정에 주어-동사의 도치가 필요 없는 (2b)의 제자리 의문사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일까? Borgonovo의 견해에 따르면, 이와 같은 선택지 역시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한다.

우선 Uribe-Etxebarria(2002)와 Etxepare & Uribe-Etxebarria(2005)가 입

3) 영어와 마찬가지로 (cf. Pesetsky & Torrego 2001) 스페인어 동사가 의문사 의문문 형성에서 이른바 ‘T-to-C’ 이동을 통해 C°까지 도달하는지 아니면 계속 T°에 머물게 되는지는 본고의 논의에 중요하지 않으므로 (4)에서 동사는 T°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낸다.

4) 나머지 이동의 정확한 착지점(landing site)이 어디인가는 중요하지 않기에 이에 대한 논의는 본문에서 생략한다.

증하였듯이, 스페인어에서 논항이 아닌 부가어 의문사구는 간접 의문문에서 문미의 제자리에 나타날 수가 없다.⁵⁾

- (6) *¿Sabes si/cuándo Pedro ha terminado el trabajo cómo?
(Borgonovo 2011: 321, (6b))

이와는 대조적으로, (1)의 문장에 대해 제자리 의문사구를 이용한 분석은 아래 (7)과 같이 *cómo*와 같은 부가어가 내포절 CP 내에서 제자리에 생성되는 것을 일단 상정해야만 한다.

- (7) No sabemos [_{CP} Pedro ha terminado el trabajo cómo].

그리고 뒤이어 나머지 이동으로 *cómo*를 제외한 모든 구성 성분을 주절 앞으로 이동시키면 (1)과 같은 어순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⁶⁾

- (8) [Pedro ha terminado el trabajo]_i no sabemos [_{CP} _{t_i} cómo].

5) Etxepare & Uribe-Etxebarria(2005: 19)에서 제시된 예는 다음과 같다.

- (i) a. *Y tu no sabes quién llegó ¿cómo?
b. *Tu te preguntas quién se ha ido ¿con quién?
c. *¿De qué no sabes quién se ha muerto?

Etxepare & Uribe-Etxebarria(2005)는 스페인어에서 외견상 제자리 의문사구를 수반한 것으로 보이는 의문문은 실제로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CP의 지정어로의 의문사 이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자리 의문사의 표면적 형태는 단지 이후 발생하는 추가적인 나머지 이동을 통해 도출된다고 주장한다.

- (ii) a. ¿Compraron qué?
b. [_{XP} [compraron _{t_i}]_j [_{CP} qué; _{t_i}]]

6) Borgonovo(2011)에서는 자세히 설명되지 않았지만, 여기서 나머지 이동하는 성분의 통사 범주는 내부의(inner) CP로 간주해 볼 수 있다. 영어와 마찬가지로 스페인어에서 내포절의 이동은 종속보문소(subordinate complementizer) *que*를 동반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i).

- (i) a. Sabemos que Juan es inteligente.
b. [Que Juan es inteligente]_j lo sabemos _{t_i}.
c. *[Juan es inteligente]_j lo sabemos que _{t_i}

(8)에 제시된 구조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내포절 *Pedro ha terminado el trabajo cómo*에서 부가어 *cómo*는 이동에 포함되지 않고 나머지 이동에 앞서 이미 해당 절 외부의 어딘가로 이동한 것으로 봐야한다 (ii).

- (ii) [_{CP} Pedro ha terminado el trabajo _{t_i}]_j no sabemos [_{CP} _{t_i} cómo].

물론 이와 같은 일련의 이동과정을 통해 전치주어가 나타나는 내포절의 표면적 어순을 적절하게 도출할 수 있게 되지만, Borgonovo는 (7)의 과정에서 상정한 간접 의문문에서의 제자리 부가어 의문사구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즉, 이전 단락의 논의를 통해 확인했듯이 (cf. (6)) 스페인어에서 제자리 의문사구는 논항이 아닌 부가어일 경우 간접 의문문에 나타날 수가 없다. 따라서 (7)의 과정에 수반된 제자리 의문사구는 그 타당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Borgonovo에 따르면 (8)에 포함된 나머지 이동 역시 문제가 있다고 한다. 이는 (1)의 문장과 유사한 다음과 같은 예문을 보면 나머지 이동하는 요소들이 이동에 적합한 하나의 구성 성분을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발생한다고 한다.^{7),8)}

(9) a. No sé [qué_i [Pedro comió t_i sin ganas antes de salir].

b. [Pedro comió t_j]_j no sé [qué_i t_i sin ganas antes de salir]

(Borgonovo 2011: 322, (7a-b))

마지막으로 Borgonovo는 앞서 언급한 나머지 이동을 상정한 분석은 해당 이동과정을 포함한 문장과 그렇지 않은 문장 사이에 어떤 특정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면, (10a-b)과 같은 문장들을 나머지 이동을 이용한 분석으로 도출하기 위해 가정할 수 있는 기저 구조의 간접 의문문들은 아래에서 보듯이 각각 적출영역 조건(Condition on Extraction Domain)과 (11a) 등위접속제약(Coordinate Structure Constraint)을 (11b) 위반하여 전부 비문이다. 따라서 나머지 이동을 매개로 (10)과 (11)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⁹⁾

7) 이 부분에서 유의할 점은 (1)의 예문과 달리 (9)는 논항 의문사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가어 의문사구의 경우와 달리 (cf. (7)), (9)의 도출 과정에 CP의 지정어 위치로 의문사구 이동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제자리 의문사구를 상정해도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도 역시 구성 성분이 아닌 요소가 나머지 이동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8) 물론 이와는 별개로 나머지 이동이 CP 상위에 정확히 어떤 착지점을 향해 행해지는 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9) (i) *Condition on Extraction Domain*

- (10) a. Salió temprano para ir a comprar no sé qué.
b. Luisa compró no sé qué en el bar y se lo comió sola.
(Borgonovo 2011: 322, (8))
- (11) a. *No sé qué salió temprano para ir a comprar.
b. *No sé qué compró Luisa en el bar y se lo comió sola.
(Borgonovo 2011: 322, (9))

이와 같은 논의들을 토대로 Borgonovo는 (1)과 같은 문장에 대해 구성 성분의 통사적 이동을 가정한 기존의 분석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1)의 문장에 출현하는 *no sabemos cómo*를 부가어(adjunct)로 간주하여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내놓는다. 다음 장에서는 이와 같은 Borgonovo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본다.

2. 부가어로 본 ... *no sabemos cómo*

Borgonovo(2011)에서는 (1)의 문장 말미에 나타난 *no sabemos cómo*를 “출처가 불분명한 의문사구”(agnostic *wh*-phrase(이하 AWP))라 칭하고 일종의 부가어로 추정하고 있다. 비록 이러한 비전형적 부가어의 출현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Borgonovo는 (1)의 문장은 단일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절인 *Pedro ha terminado el trabajo*에 부가어 AWP인 *no sabemos cómo*가 (문장 부사구로서) 기저 생성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단락에서는 과연 무슨 근거로 Borgonovo는 (1)에 나타난 *no sabemos cómo*를 부가어로 간주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Borgonovo는 *no sabemos cómo*와 같은 불완전한 형태를 가진 부가어 AWP가 하나의 성분을 이루고 있는지를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A phrase A may be extracted out of a domain B only if B is properly governed.
(Huang 1982:505)

(ii) *Coordinate Structure Constraint*

In a coordinate structure, no conjunct may be moved nor may any element contained in a conjunct be moved out of that conjunct.

(Ross 1967:89)

먼저 아래 (12)의 예문을 통해 관찰할 수 있듯이, (1)에 나타난 *no sabemos cómo*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부가어 AWP로 볼 수 있는 *no sé dónde*는 화제화(topicalization)를 통해 문두에 나타날 수가 있다.¹⁰⁾

(12) No sé dónde # vi muebles exactamente como los que querés.

(Borgonovo 2011: 322, (10))

오직 성분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만이 이동할 수 있다는 통사에서의 기본 전제를 고려해 보면, 화제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해당 부가어 AWP가 하나의 구성 성분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또한 아래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AWP가 등위 접속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AWP는 하나의 성분임을 확인하고 있다.¹¹⁾

(13) Se encontró con no sé qué o no sé quién en el bosque y se asustó.

(Borgonovo 2011: 322, (11))

이상의 관찰 결과를 토대로 위의 언급한 예문들에 나타난 AWP는 비록 음성 실현된 형태로 보면 불완전하지만 충분히 하나의 성분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¹²⁾

한편, 부가어 AWP와 동사와의 호환성에 대해 Borgonovo는 *pensar, creer* 등

10) 여기서 # 표시는 화제와 나머지 문장 간의 음성적 휴지를 의미한다. 비록 Borgonovo(2011)에서 자세히 설명되지는 않았지만, (12)의 문장에 출현한 부가어 AWP *no sé dónde*는 문두에 기저 생성된(base-generated) 것이 아니라 아래 (i)에 나타난 것처럼 문미에서 문두로 통사적 이동을 통해 화제화된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i) [No sé dónde]_i vi muebles exactamente como los que querés _{t_i}.

추후 III.3에서 논의하겠지만 (12)와 같은 문장을 AWP가 아닌 일반적인 스페인어 간접 의문문의 형태로 분석하는 것도 충분히 납득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11) 이전에 언급한 예문들과 달리, (13)에서 등위 접속하는 AWP는 부가어가 아닌 논항인 것이 특징이다. Borgonovo는 논항과 비논항의 지위를 갖는 AWP를 모두 동일한 접근법을 통해 부가어로 분석하고 있다. 과연 이와 같은 단일 분석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III.3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12) 그렇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결론은 본고가 III.2장에서 제시할 분석을 통해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으므로 Borgonovo(2011)의 부가어 분석에 대한 강력한 장점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과 같은 비사실적(non-factive)동사의 경우에 제약이 있긴 하지만 (14c), 기본적으로 간접 의문문을 취할 수 있는 동사들은 AWP와 결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14a-b).

- (14) a. Lo que no (me) imagino cómo/no sé cómo/no tengo idea
 cómo/(mejor) no pregunto cómo/no estoy segura (de)
 cómo/no entiendo cómo.
- b. Lo hizo me pregunto cómo/Lo hizo ya te imaginás por qué/Lo
 hizo todos sabemos quién.
- c. *Lo hizo no pienso/no creo cómo.

(Borgonovo 2011: 323, (12))

마지막으로 Borgonovo는 AWP는 다음과 같은 분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AWP는 자신이 수식하는 요소가 문장 성분으로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따라 해당 성분의 분포를 보여준다. 즉, AWP가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면 전형적인 주어 위치에 나타나고 (15a), 목적어 역할을 하면 전형적인 목적어 위치에 나타난다 (15b-c). 마찬가지로 AWP가 부가어 역할을 할 경우 전형적인 부가어 위치에 나타나게 된다 (15d-e).¹³⁾

- (15) a. No sé quién le dijo que habría problema con Juan.
- b. Vieron no sé qué (que los asustó) en el campo.
- c. Le dieron el premio a ya te imaginarás quién ayer.
- d. Vimos a Zolio no sé dónde el martes.
- e. Vimos a Zolio en el mercado no sé cuándo.

(Borgonovo 2011: 323, (14))

이상의 관찰들을 종합해 보면, AWP는 일종의 부가어로서 다양한 문장 성분을 수식하는 위치에 출현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13) 필자가 문의한 원어민 화자들의 판단에 따르면, (15d-e)의 경우 AWP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문장 역시

- (i) a. Vimos a Zolio el martes no sé dónde.
- b. Vimos a Zolio no sé cuándo en el mercado.

Borgonovo(2011)의 연구에는 과연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AWP가 각각의 해당 문장 성분과 통사적으로 결합하는지는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Borgonovo가 기저 생성되는 부가어로 본 AWP에 대한 좀 더 면밀한 분석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무엇보다도 본고는 Borgonovo의 부가어 분석이 함축하고 있는 아래 두 가지 이론적인 측면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15a)의 경우 논항 위치에 나타난 AWP *no sé quién*이 주어진 문장의 *pro*주어와 과연 어떻게 통사적으로 결합하는지, 또 통사 구조상에서 어떤 층위에서 (e.g. vP-층위 또는 TP-층위) 서로 결합하는지 등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다시 말하면, (16a) 혹은 (16b)와 같은 구조를 상정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 (16) a. (?) [TP [[_{AdvP} No sé quién] *pro*] [_{T'} le dijo que habría problema con Juan]]
 b. (?) [_{TP} [_{T'} le dijo [_{vP} [_{AdvP} no sé quién] *pro*] [que habría problema con Juan]]]

필자가 보기에는 (15a)와 같은 문장은 위에 제시한 구조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전형적인 간접 의문문으로 분석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으로 판단된다. 즉, (15a)의 문장에서 *no sé quién*은 (16)의 구조를 통해 기저 생성된 논항 AWP가 아니라 아래 (17)에 나타난 것처럼 주절의 동사 *no saber*가 *quién le dijo que habría problema con Juan*을 내포절로 취한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 훨씬 더 단순하고 간결한 설명이 될 수 있어 보인다.¹⁴⁾

- (17) No sé [_{CP} *quién*_i [_{le} dijo *t*_i que habría problema con Juan]].

또한, (15b)의 경우에도 논항의 위치에 나타난 AWP *no sé qué*가 과연 어떻게

14) 이 구조에서 주어 의문사구인 *quién*이 TP의 지정어를 거쳐 CP의 지정어로 이동한지는 현재 단락의 논의에서 중요하지 않다. 한편, (15a)에 상응하는 영어 문장은 다음과 같다.

(i) I don't know who said that there would be problem with John.

필자가 알기로는, 이와 같은 문장은 영어 통사에서 기본적으로 (17)의 구조를 통해 분석되지만 (16)과 같은 분석으로 처리되지는 않는 것 같다.

주어진 문장의 목적어와 결합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워 보인다. 이 경우에는 목적어 위치에 공범주 *pro*를 상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저 생성되는 부가어로 본 AWP의 분석에서 목적어 명사구와 결합하는 유일한 방법은 앞서 언급한 공범주 *pro*를 통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봤을 때, Borgonovo가 제시한 AWP의 분석은 (18)과 같은 구조를 필연적으로 제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¹⁵⁾

(18) (?)Vieron_i [_{VP} t_i [*pro* [_{AdvP} no sé qué]] (que los asustó) en el campo].

하지만 필자의 견해로는 과연 이와 같이 목적어 위치에 공범주 *pro*를 상정하는 것이 스페인어와 같은 언어의 경우 바람직한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한국어와 일본어 (또는 바스크어)처럼 소위 영목적어 구문(null object constructions)이 생산적인 언어에서는 공범주 *pro*를 목적어 위치에 상정하여 분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겠지만, 스페인어 (또는 영어)의 경우에는 영목적어 구문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만약 있다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이며 또 생산적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문제점들이 (15c-e)의 예문에서도 발생하며 그에 대한 해결책 역시 쉽게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Borgonovo(2011)가 AWP라 명명한 의문사구를 단순히 기저 생성된 부가어의 일종으로 분석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며 좀 더 세밀한 논의와 검증을 통해 해당 분석의 적절성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¹⁶⁾

- 15) (18)의 구조에서 동사는 T°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낸 것일 뿐이며 본문의 논지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 만약 *pro*가 TP의 지정어 위치에 기저 생성된다고 가정하면, AWP를 부사구로 본 분석은 좀 더 복잡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과연 AWP인 *no sé qué* (*que los asustó*)가 인접하지 않은 *pro*와 어떻게 결합이 가능한지가 또 다른 의문으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 16) 혹자는 (15)의 예문들에서 굳이 공범주 *pro*와 같은 이론적 기제를 가정하지 않고도 배분집합(numeration)에서 이미 각각의 AWP가 하나의 성분으로서 여타 일반적인 DP-논항처럼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도출 과정에 직접 도입되는 것으로 분석할

III. 절 생략(clausal ellipsis)으로 본 ... *no sabemos cómo*

이 장에서는 (1)의 문장 말미에 나타난 *no sabemos cómo*를 기저 생성된 부가어로 보지 않고 대표적인 절 생략 구문으로 알려진 수문(slucing)과 *why*-최소 공백화(*why*-stripping)의 도출방식과 유사하게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수문과 *why*-최소 공백화

수문이란 Ross(1967)에 의해 이름 붙여진 절 생략 현상의 일종으로 아래에서 보듯이 내포절인 간접 의문문에 오직 의문사구만이 음성적으로 실현되어 있을 뿐 나머지 문장 성분들은 외현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 (19) a. Juan compró algo, pero no sé qué (=qué compró Juan).
 b. A Juan no le gustan lentejas, pero no sabe por qué (por qué no le gustan lentejas)
 c. Juan consiguió la entrada para El Clásico, pero no sabemos cómo (=cómo consiguió la entrada para El Clásico)

위의 예문들에서는 모두 음성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부분, 즉 의문사구를 제외한 문장의 나머지 부분이 앞 문장에 나타난 선행사의 뒤를 이어 나타나 있지만, 의문사구가 선행사의 앞에 나타나 있는 다음과 같은 수문의 예들도 충분히 생성 가능하다.¹⁷⁾

- (20) a. No sabemos qué libro, pero Luis se lo ha prestado a María
 (=qué libro se lo ha prestado Luis a María)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 ver, [DP no sé qué] ...}). 흥미로운 가능성이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후일을 기약한다.

- 17) 잘 알려져 있듯이, 다음과 같은 조각 답변문(fragment answers)에도 수문의 형태가 출현 가능하다 (Merchant 2004).

- (i) A: Juan compró algo.
 B: No sabemos qué.

- b. No sé por qué, pero se ha cancelado el contrato (=por qué se ha cancelado el contrato)

생성문법의 관점에서 Ross(1969), Chomsky(1972), Lasnik(2001), Merchant(2001)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수문에 대해 아래 (21)과 같은 이동과 삭제를 통한 분석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우선 내포절 CP의 지정어 위치로 의문사구를 이동한 후 뒤에 남아 있는 TP 전체를 PF에서 삭제함으로써 수문을 얻게 된다.^{18), 19)}

- (21) Juan compró algo, pero no sé [_{CP} qué_i [_{C'} C_[E] [~~que compró Juan_i t_i]]]
(= (19a))~~

이와 같은 PF-삭제 분석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절 생략의 구조를 가진 또 다른 구문인 최소 공백화(stripping)에도 별다른 수정사항 없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 (cf. Hankamer & Sag 1976, Reinhart 1991, Depiante 2000). 예를 들면, (22a)의 최소 공백화 문장은 (22b)와 같이 오직 하나의 문장 성분만을 잔여물(remnant)로 남기고 나머지 전체 TP를 삭제함으로서 얻을 수 있다.²⁰⁾

- (22) a. Juan compró un coche, y no una moto.
b. ... y no [_{FP} una moto_i [_{TP} compró Juan t_i]]

18) 물론 수문에 대한 비삭제 분석(non-deletion analysis)도 선행 연구에 존재하지만 (cf. Lobeck 1995, Chung *et al* 1995, Ginzburg & Sag 2000, Culicover & Jackendoff 2005), 비삭제 분석과 삭제 분석의 비교는 본고의 취지를 벗어나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본고는 더 이상의 논의 없이 수문 및 (*why*)-최소 공백화에 대한 삭제 분석을 가정한다.

19) (21)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Merchant(2001)식 분석을 받아들여 구성한 것이다. Merchant는 수문에서 보문소 C*가 [E(lipsis)]-자질을 가지며 이 자질은 자신의 보충어인 TP를 생략하도록 지시한다. 자세한 이론적인 내용은 본문의 논지와 상관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한다.

20) 생략의 잔여물인 *una moto*가 좌향이동(leftward movement)을 하는지 아니면 우향이동(rightward movement)을 하는지는 현재까지도 학자들 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Depiante(2000)의 경우 최소 공백화에서 잔여성분은 좌향이동하여 IP의 상위에 투사된 FocP의 지정어로 이동한다고 주장하지만 (ia), Yoshida *et al*(2015)은 잔여성분이 우향이동하여 CP(=ΣP)에 부가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ib).

특히 아래 (23)과 같이 이유·원인과 관련이 있는 *why*-의문사구가 포함된 *why*-최소 공백화 구문에 대해 Nevins(2008), Ortega-Santos *et al*(2014), Yoshida *et al*(2015)과 같은 학자들은 (21)의 수문과 (22)의 최소 공백화가 결합한 형태로 간주하여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23)에 나타난 *why*-최소 공백화의 경우, 이들 학자들은 (21)에서 본 수문의 분석과 달리 *why*-의문사구는 (24)처럼 CP의 지정어 위치에 기저 생성을 통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23) A: Juan besó a María.

B: Por qué a María (y no a Susana).

(Ortega-Santos *et al* 2014: 69, (52))

(24) [_{CP} Por qué [_{FP} a María [_{TP} Juan besó]]]

생성문법에서 많은 학자들은 의문사구의 이동에 관해 논항과 비논항의 지위에 따라 구분지어 분석하는 것이 의문사 섬 제약(*wh*-island constraint) 등과 같이 이동을 수반하는 통사적 현상에 나타나는 논항·비논항 비대칭성(asymmetry)을 설명하는데 있어 더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cf. Cinque 1990, Rizzi 1990, Aoun & Li 1993). 이와 같은 논항과 비논항의 구분에 따른 의문사구 접근법에 따르면, 오직 논항 의문사구만이 CP의 지정어로 이동하며 비논항 의문사구의 경우 이동이 아니라 해당 위치에 기저 생성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동사의 논항에 해당하는 의문사구의 경우에만 실질적으로 의문사 이동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25a-b).

(i) a. [_{ΣP} no [_{FocP} remnant_i [_{TP} ~~Juan besó~~]]]

b. [_{CP/ΣP} no [_{TP} ~~Juan besó~~] remnant_i]

(ia)의 분석에서는 부정어 *no*가 위치한 ΣP와 IP 사이에 잔여성분이 마치 끼어드는(tucking in) 방식으로 이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 분석을 수용한 학자들은 IP 상위에 FocP를 필수적으로 투사하여 이와 같은 견해를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ib)의 분석에서는 이러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지만 이 분석은 대신에 우향이동 자체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이론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후일을 기약하고, 편의상 본문의 (22b)에서 잔여성분은 좌향이동한 것으로 나타낸다.

- (25) a. [CP [quién/qué/a quién]_i [... t_i]]
 b. [CP [por qué/cómo/cuándo/dónde] [...]]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다음 장에서는 Borgonovo(2011)의 관심을 끈 (1)과 같은 문장을 수문과 *why*-최소 공백화의 조합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수문과 *why*-최소 공백화의 조합으로 본 ... *no sabemos cómo*

우선 (1)(=(26))에서 살펴본 문장에 대해 본고는 Borgonovo(2011)의 기저 생성 부가어 분석을 위해 가정하고 있는 단일절(mono-clause) 구조가 아닌 (27)과 같은 이중절(bi-clause)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이와 같은 가정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중절 구조는 앞서 언급한 수문과 최소 공백화의 분석의 이면에 깔린 기본적인 전제이기 때문이다.

- (26) Pedro ha terminado el trabajo no sabemos cómo.
 (27) [CP₁ Pedro ha terminado el trabajo] [CP₂ no sabemos cómo]

하지만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은 과연 (26)과 같은 문장에서 CP₁과 CP₂ 사이에 어떠한 절 단위의 경계가 드러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앞서 II.1 장에서 관찰했듯이, 수문과 (*why*-)최소 공백화 구문에는 선행절과 후행절 (또는 생략절(ellipsis clause)) 사이에 확연한 음성적 휴지(prosodic pause)가 나타나며 이를 통해 어렵지 않게 이중절의 구조를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다. 반면에, I 장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Borgonovo(2011)는 (26)과 같은 문장에서는 *Pedro ha terminado el trabajo*와 *no sabemos cómo* 사이에는 복문임을 암시하는 등위접속이나 종속을 나타내는 어떠한 표지도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고 했다. 만일 그렇다면, 본고에서 가정하고자 하는 (27)의 구조는 애초에 상정 자체가 불가능한 것일까? 이에 따라 수문과 *why*-최소 공백화의 조합으로 (26)의 문장을 분석하는 것 또한 불가능한 것일까?

필자의 견해로는 해당 구문에서 음성적 휴지가 외현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이중절이 아닌 단일절로만 되어야 하는 것을 아니라고 본다.

실제로 필자가 문의한 스페인 출신 원어민 화자들 중 상당수는 (26)과 같은 문장에서 *Pedro ha terminado el trabajo* 뒤에 수문과 최소 공백화의 경우처럼 현재하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약간의 휴지를 두고 이어 *no sabemos cómo*를 발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고 한다.^{21), 22)}

(28) Pedro ha terminado el trabajo # no sabemos cómo.

사실 본고는 (27)에서 상정한 이중절 구조를 통해 전형적인 등위 접속문이나 종속문의 구조를 (26)의 문장에 포함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단지 (27)의 구조는 현재 단락의 논의를 통해 (26)의 문장이 단일절이 아닌 이중절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가정하여 분석을 전개하기 위함일 뿐이다.

이와 더불어, 필자는 (26)의 문장 도출의 최종단계에서 (27)의 구조에 나타난 CP₁과 CP₂는 부가의 형식으로(by adjunction), 즉 CP₂가 CP₁에 부가되어 두

21)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상·하향 음조 곡선(rising and falling intonation contour)을 확인해 보는 것이다. 만약 (26)의 문장이 단일절로 구성되어 있다면, 전형적인 스페인어 SVO 어순에 나타난다고 알려진 [S/V\O]의 어조 패턴을 보일 것이다 (cf. Hualde *et al* 2001, Hualde 2002). 하지만 필자가 문의한 원어민 화자들은 (26)의 어조 패턴은 일반적인 SVO 구문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는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 흥미로운 부분이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후일을 기약해 본다. 한편, 익명의 심사자는 (27)에 제시된 구조에서 CP₁과 CP₂ 사이의 음성적 휴지가 등위접속사 또는 종속접속사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언급하였다. 필자는 이와 같은 심사자의 견해에 동의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를 통해 이를 뒷받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아래 (ii)와 같이 세 개 이상의 절이 등위 접속된 경우, 첫 번째와 두 번째 절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등위접속사가 외현적으로 출현하지 않지만, 두 절은 등위 접속된 것으로 해석된다.

(ii) Pedro salió de la clase, se fue a comprar un bocadillo, y volvió a casa.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비록 (26)의 예문에는 등위나 종속을 나타내는 어떠한 외현적인 표지가 없더라도 해당 예문이 반드시 단일절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22) 또 다른 익명의 심사자는 (28)에서 *no sabemos cómo* 앞에서 휴지가 나타나기에 앞서서 *Pedro ha terminado el trabajo*가 완전한 평서문형 하강 억양조로 실현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수문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현상으로 (28)과 같은 문장이 두 개의 CP로 구성된다는 제안을 뒷받침하는 추가 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27)에 제안한 구조가 좀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중요한 논거를 더해진 심사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절이 서로 결합한다고 가정한다 (29).²³⁾

(29) [CP₁ [CP₁ Pedro ha terminado el trabajo] [CP₂ no sabemos cómo]]

혹자는 여기서 CP₂가 CP₁으로 부가되는 것은 Munn(1993)을 비롯한 다수의 학자들이 등위 접속문을 부가의 형식으로 분석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를 통해 (29)에 제시된 구조가 일종의 등위접속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의구심을 나타낼 수도 있다. 앞서 III.1장에서 언급했듯이, 실제로 (26)과 같은 생략문은 수문과 유사한 측면이 많으며, 수문의 출현 환경이 일반적으로 등위 접속 구조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26)의 문장을 일종의 등위 접속문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26)에는 전형적인 수문과 달리 외현적 접속사가 부재하기 때문에 (26)의 생략문을 단순히 수문과 동일시하는 것보다는 후자의 특성을 어느 정도 가진 일종의 변이형(variant)으로 간주하고 현재 단락의 논의를 전개해 보도록 한다.

지금까지 가정한 이론적 기반을 토대로 다음 단락에서는 어떻게 (26)의 생략문이 수문과 *why*-최소 공백화의 조합으로 도출될 수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음성부 삭제과정이 적용되기 이전 후행절 문장의 기저 구조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23) 물론 (29)의 구조를 대신해 문두에 출현하는 *si*-가정문의 경우처럼 CP₁이 문장 외곽에 투사된 기능구 (e.g. FocP)의 지정어 위치에 그리고 CP₂가 보충어 위치에 나타나는 X⁻-bar 구조를 가정해 볼 수도 있다 (cf. Cinque 1999, 2006, Valmala 2009, Borgonovo & Valmala 2009). 흥미롭겠지만 이와 같은 대안과 (29)에 제시한 부가의 형식을 통한 절 결합과의 비교는 본문의 논지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한편, 익명의 심사자는 (29)에서 제안하고 있는 CP₂가 CP₁에 우향부가 (Right Adjunction)되는 과정이 Kayne(1994)의 선형대응공리(Linear Correspondence Axiom)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심사자에 따르면, 표찰달기(Labeling)에 관한 Chomsky(2013, 2015)의 제안을 적용하여 CP₁과 CP₂의 공통된 기준적 자질(criterial feature)을 고려하고 [α CP₁ CP₂]에서 α 의 표찰을 정의하는 것으로 본고의 분석에 포함된 우향부가 문제를 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심사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필자는 CP₁과 CP₂의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자질을 가령 “Conj”로 가정하고, {XP, YP} → <Conj, Conj>으로 표찰을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본다. 이론적 보완이 필요한 본고의 분석에 대한 심사자의 값진 논평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 (30) ... [CP₂ no sabemos [CP cómo [C' C_[E] [TP ha terminad_{oi} [_{VP} Pedro [_{VP} t_i el trabajo]]]]]]]

이 구조에서 비논항 의문사구인 *cómo*는 앞서 III.1장에서 논의한 *why*-최소 공백화와 마찬가지로 내포절 CP의 지정어 위치에 기저 생성되며 TP 내부의 통사과정은 전형적인 스페인어 간접 의문문과 동일하다. 즉 T°로의 동사 이동으로 주어-동사 도치가 발생한 구조를 포함하고 있다. 다음 과정으로 후행절의 TP는 선행절의 TP와의 동일성 조건(identity condition) 하에서 삭제되면 최종적으로 아래 (31)과 같은 결과물을 얻게 된다.²⁴⁾

- (31) ... [CP₂ no sabemos [CP cómo [C' C_[E] [~~CP~~ ha terminad_{oi} [~~CP~~ Pedro [~~VP~~ t_i el trabajo]]]]]]]

이와 같은 수문과 *why*-최소 공백화의 조합을 통해 (26)의 예문을 생략문으로 분석하는 것은 Borgonovo(2011)의 기저 생성 부가어 분석에 비해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진다.

먼저 I장에서 Borgonovo가 단일절 하에서 (26)의 생략문을 이동 분석으로 처리할 경우 생기는 문제점으로 지적한 주어-동사의 도치 현상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본고가 제안하는 분석은 이중절을 상정하고 있으며, 삭제 분석에 따라 후행절에서는 비논항 의문사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음성부에서 실현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가 제안한 분석에 따르면, 아래 (32)와 같은 주어-동사의 도치가 발생하지 않은, 즉 선행절이 VSO와 VOS 어순을 가진 문장들 역시 어렵지 않게 도출될 수가 있다.

- (32) a. Ha terminado Pedro el trabajo no sabemos cómo.

24) 생성문법의 관점에서 수행된 많은 연구들을 통해 정립된 주지의 사실은 생략은 기본적으로 생략성분과 이 성분의 선행성분이 동일한 경우에만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동일성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생략이 불가능하다. 수문에 적용된 생략에 관여하는 동일성 조건의 여러 견해들과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Merchant(2001, 2005), Chung(2013), Barker(2013), Barros(2014) 등을 참조.

b. Ha terminado el trabajo Pedro no sabemos cómo.

또한 Borgonovo (2011)에 언급된 기저 생성된 AWP의 주제화 가능성 역시 (31)에 제시된 분석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다. 앞서 (20)의 예문들을 통해 수문에서 의문사구가 선행사의 앞에 나타날 수도 있음을 확인했다. 이 경우 음성부 삭제는 (동일성 조건 하에서) 후행절이 아닌 선행절에 나타난다. 이와 마찬가지로 (26)의 생략문을 본고가 제안하는 것처럼 수문과 *why*-최소 공백화의 조합으로 분석하는 경우에도 (33)과 같이 선행절에 삭제를 적용하여, 그 결과 (34)와 같이 주제화 된 어순 구조를 가진 문장을 도출할 수 있다.

(33) [CP₁ no sabemos [CP cómo [C' C_[E] [~~que~~ ha terminado, [~~que~~ Pedro [~~que~~ t_i el trabajo]]]]]] ...

(34) No sabemos cómo # Pedro ha terminado el trabajo.

물론 이와 같은 문장에서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에는 어느 정도 음성적 휴지가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문장에서 외견상으로 음성적 휴지가 반드시 이동을 통한 주제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 구문에서 어떤 구성 성분이 기저 생성된 경우에도 음성적 휴지를 통해 주제화된 것으로 나타낸다. 이를 고려해 보면, (34)에 나타난 음성적 휴지의 존재는 아래 (35)과 같이 문장 외곽에 기저 생성된 이른바 “Hanging Topic” 구문의 경우와 유사하게 간주해 볼 수 있다.²⁵⁾

(35) a. Las rosas, me encantan esas flores.

b. Juan, no me acuerdo de él.

(Olarrea 2012: 610-611)

25) 선행연구에서 Hernanz & Brucart(1987), Olarrea(1996), Zubizarreta(1999)와 같은 학자들은 (35)과 같은 Hanging Topic 구문의 통사구조는 접어 좌향 전위(Clitic Left Dislocation(이하 CLLD)) 구문과 다르며 주제화된 요소는 통사적 이동이 아닌 기저 생성을 통해 문두에 나타난다고 한다. 스페인어 Hanging Topic과 CLLD의 다양한 차이점과 그에 대한 논의는 Olarrea(2012)를 참조.

또한 (34)의 분석에서는 후행절의 어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 즉 (34)에 제시된 분석 하에서 후행절에 주어-동사의 도치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도출의 결과물이 비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본고에서 가정하고 있는 이중절 분석에서는 선행절의 비논항 의문사구 *cómo*와 후행절의 주어-동사의 도치 어순은 서로 어떠한 연관성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선행절과 후행절은 각각 독립적인 도출과정을 거치며 선행절의 *cómo*와 관련 있는 주어-동사의 도치 현상은 (33)에 나타난 과정을 통해 음성부에서 삭제된 것이다.

별 다른 추가적인 논의 없이 (36)과 같은 비논항 의문사구 *por qué*가 나타난 문장도 (31)에 제안한 이중절 분석을 통해 도출할 수 있다 (37).

(36) A Juan no le gustan rentejas no sabemos por qué.

(37) ... [CP₂ no sabemos [CP por qué [c' C_[E] [~~no~~ Juan no le gustan rentejas]]]]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본고는 표면적으로 문장 구성 원리를 위반한 것처럼 보이는 (1)(=(26))과 같은 문장은 이중절 구조 하에서 수문과 *why*-최소 공백화의 결합으로 분석하였다.

3. 논항 의문사구가 포함된 경우

만일 III.2장에서 제안한 분석이 옳다면, 논항 의문사구가 나타난 (15a-b)(=(38a-b))와 같은 문장들도 동일하게 분석할 수 있을까?

(38) a. No sé quién le dijo que habría problema con Juan.

b. Vieron no sé qué (que los asustó) en el campo.

(Borgonovo 2011: 323, (14a-b))

먼저 (38a)의 경우를 살펴보자. 본고는 해당 문장이 Borgonovo(2011)의 견해와는 달리 논항 AWP를 포함한 문장도 아니며, 또한 굳이 III.2장에 논의한 것처럼 이중절을 가정하지 않고도 분석할 수 있다고 본다. 즉, (38a)의 예문은 (39)와 같이 주어 의문사구를 포함한 스페인어의 전형적인 간접 의문문으로 훨

썬 더 간결하게 분석할 수 있다.

(39) No sé [_{CP} quién_i [_{TP} le dijo t_i que habría problema con Juan]].

잘 알다시피, 이와 같은 간접 의문문에서는 주어 의문사구가 CP의 지정어로 이동하기에 표면적으로는 주어-동사 도치가 일어난 어순을 나타내지 않는다. 만일 (38a)를 (39)의 구조와 같이 분석하는 것이 옳다면, (38a)는 한 문장에 두 개의 주어와 두 개의 술어가 나타난 특이한 경우가 전혀 아니다. 다시 말하면, (38a)는 단지 주절에 주어와 동사 그리고 주절의 동사가 이끄는 내포절에 주어와 동사가 각각 나타난 아주 자연스러운 문장이다.²⁶⁾

다음으로 (38b)의 문장을 고려해 보자. 언뜻 보기에 이 문장은 잠재적으로 부가어 AWP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목적어 의문사구 *qué*를 동반한 성분인 *no sé qué*의 앞과 뒤에 어떠한 음성적 휴지도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자가 문의한 스페인 출신 원어민 화자들은 (38b)의 예문에서 동사 *vieron* 뒤에 약간의 음성적 휴지가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

26) 익명의 심사자는 (38a)를 단순한 간접 의문문으로 볼 것인지 AWP를 포함하는 문장으로 볼 것인지는 필히 *quién* 다음에 음성적 휴지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만일 음성적 휴지가 발생하여 *no sé quién*을 하나의 구성 성분, 즉 AWP로 고려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본고가 제안하고 있는 주장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질 것이라 지적하였다. 또한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이 경우 [_{CP1} No sé quién ~~le dijo que habría problema con Juan~~] [_{CP2} le dijo que habría problema con Juan]과 같은 기저구조에 _{CP1}의 일부분에 대한 생략이 동반되는 비경제적인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논평에 대한 필자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우선 (39a)에 나타난 *no sé quién*이 하나의 구성 성분을 이루는지에 관해 Borgonovo(2011)에서는 의문사구 *quién* 뒤에 음성적 휴지가 (불)필요한지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 하지만 필자가 문의한 원어민 화자들에 따르면, (39a)의 *quién* 다음에 음성적 휴지가 나타나는 것은 어색하다고 한다. 이를 고려하여 본문에서는 의문사구 *quién* 뒤에 음성적 휴지가 없다고 가정하고 (39a)를 간접 의문문으로 분석하는 것을 제안한 것이다. 한편, 위의 심사자가 제기한 _{CP1}에 발생하는 생략을 통해 본고의 제안이 비경제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지적에 관해 필자는 (39a)에 대한 분석은 (40)과 같이 이중절을 포함한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한다. 즉, III.2장에서 논의한 비논항 의문사구를 포함한 경우와 달리 (39)의 예문들은 모두 논항 의문사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본문 (40)에 제시된 단일절 구조를 통해 (39a)를 분석하고 있으므로 이중절 구조에서 야기될 수 있는 _{CP1}에 생략에 따른 비경제성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다고 한다 (40).

(40) Vieron # no sé qué (que los asustó) en el campo.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해 보면, (38b)의 문장이 실제로는 구어체에서 어렵지 않게 관찰되는 (41)과 같은 예문들과 유사하며, (38b)에서 목적어 명사구와 결합한 형태인 *no sé qué (que los asustó)*를 일종의 통사적 합성물(syntactic amalgam)로 분석해 볼 여지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²⁷⁾

(41) a. Juan compró(,) yo creo que un Mercedes.
b. Le dieron el premio(,) yo creo que a Susana.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41a)에 나타난 비완성형 절 *yo creo que*와 타동사 *comprar*의 목적어 명사구인 *un Mercedes*는 범주적 선택(c-selection) 및 의미적 선택(s-selection)에 있어서 서로 전혀 호환되지 않는 두 요소간의 결합이지만 해당 문장은 정문으로 원어민 화자들에게 널리 수용된다. (41b)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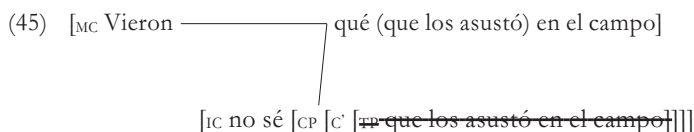
이와 같은 통사적 합성물을 포함한 비전형적 문장의 구성에 대해, 만약 Kluck(2011)의 분석을 받아들여 (41a)의 예문을 나타내 보면 (42)과 같이 통사상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절 구조가 하나의 공통된 구성 요소인 *un Mercedes*를 관찰하고 있다.²⁸⁾

(42) [MC Juan compró ————— un Mercedes]
 [IC yo creo que ~~un es...~~ ~~un t...~~]

27) 필자가 문의한 원어민 화자들에 따르면 동사 뒤에 음성적 휴지가 나타나지 않아도 (41)의 문장들은 모두 수용가능하다고 한다.

28) 통사적 합성물을 분석한 대표적 선행 연구로는 Lakoff(1974), Guimaraes(2004), Kluck(2011) 등을 언급할 수 있다. Lakoff(1974)가 제시한 영어 통사적 합성물의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다.

필자의 견해로는 음성적 휴지의 유무에 관계없이 (38b)의 예문에서도 (41)의 경우와 유사하게 비완성형 절 *no sé*와 목적어 의문사구 *qué*는 통사 상에서 다중관할을 통해 서로 합성되어 하나의 성분으로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사료된다. 동일한 조건 하에서, 이 경우에도 역시 (42)와 마찬가지로 간접절에 삭제과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분석해 볼 수 있다 (45).³⁰⁾



이와 같은 다중관할을 이용한 분석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후일을 기약하며, 본고는 (38)의 예문들이 반드시 Borgonovo(2011)의 가설대로 단일절 하에서 기저 생성된 AWP로 분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며 논의를 마무리한다.

IV. 결론 및 남은 과제들

본고는 서론에서 살펴 본 *Pedro ha terminado el trabajo no sabemos cómo*와 같은 스페인어 문장은 문장 구성 원리를 위배하여 두 개의 주어와 두 개의 술어를 가진 단문이 아니라 두 개의 독립절이 부가의 형식으로 서로 결합되어 이루어진 복문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문미에 출현한 *no sabemos cómo*에 대한 Borgonovo(2011)의 기저 생성 부가어로의 분석은 몇 가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고는 위에 언

30) 익명의 심사자는 의미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45)에서 *qué*가 *vieron*에 의해 관할되는 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였다. 아래 (i)와 같은 예문을 보면 *ver*동사가 의문사구 *qué*를 의미적으로 선택하고 있다.

(i) a. Todos vieron qué le pasó a mi amigo.

b. Ya vimos qué pasó allí en el campo de batalla.

따라서 (45)에서 *qué*가 *vieron*에 의해 의미적으로 관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급한 문장은 단일절이 아닌 이중절로 구성되어 있는 생략문의 일종으로 수문과 *why*-최소 공백화의 결합으로 분석하는 것이 훨씬 더 간결하며 경험적 자료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본고의 제안에 따르면 *Pedro ha terminado el trabajo no sabemos cómo*에 나타난 *no sabemos cómo*는 비정형적 부가어가 아닌 음성부 삭제의 결과로 나타난 절의 형태로 도출된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Pedro ha terminado el trabajo no sabemos cómo*와 같은 생략문의분석에서 이중절 구조를 부가의 형식으로 가정한 부분에 대해 보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즉 과연 부가의 형식만을 가지고 해당 문장을 이중절로 상정하는 것만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른바 X^0 -bar 구조를 통해 지정어와 보충어 위치에 각각의 독립절을 상정하여 분석하는 것이 더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본고가 제안한 이중절의 후행절에 나타난 의문사구에 대한 논항과 비논항의 구분에 따른 혼합적 접근방식이 적절한지 보다 많은 경험적인 자료들을 통해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III.3장의 말미에 논의한 생략절에 출현한 몇몇 논항 의문사구의 사례를 통사적 합성물과 유사하게 다중관할로 분석하는 것이 이론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경험적인 측면에서도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쟁점들은 후속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 Aoun, J. & A. Li.(1993), “WH-elements in situ: Syntax or LF?”, *Linguistic Inquiry* 24, pp. 199-238.
- Barker, C.(2013), “Scopability and sluicing”, *Linguistics and Philosophy* 36, pp. 187-223.
- Barros, M.(2014), “Sluicing and identity in ellipsis”, Doctoral Dissertation, Rutgers University, New Brunswick, NJ.
- Borgonovo, C.(2011), “Sintagmas *Qu*-agnósticos”, *60 problemas de gramática*(eds.), Escandell Vidal, M. V., M. Leonetti & C. Sánchez López, Akal libros.
- Borgonovo, C. & V. Valmala.(2009), “Constructions and the theory of grammar”, Ms, University of Laval & University of the Basque Country.

- Chomsky, N.(1972), “Deep structure, surface structure and semantic interpretation”, *Studies on semantics in generative grammar*, Mouton, The Hague, The Netherlands, pp. 62-119.
- _____(2013), “Problems of projections”. *Lingua* 130, pp. 33-49.
- _____(2015), “Problems of projection: Extensions”, Elisa Di Domenico, Cornelia Hamann & Simona Matteini(eds.), *Structures, Strategies and Beyond: Studies in Honour of Adriana Belletti*,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p. 3-16.
- Chung, S., Ladusaw, W. & J. McCloskey.(1995), “Sluicing and logical form”, *Natural Language Semantics* 3, pp. 239-282.
- Chung, S.(2013), “Syntactic identity in sluicing: How much and why”, *Linguistic Inquiry* 44, pp. 1-44.
- Cinque, G.(1990), *Types of A'-Dependencies*, Cambridge: MIT Press.
- _____(1999), *Adverbs and Functional Heads*,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2006), *Restructuring and Functional Heads: The Cartography of Syntactic Structures*, Vol. 4.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ulicover, P., & R. Jackendoff.(2005), *Simpler syntax*,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epiante, M. A.(2000), “The syntax of deep and surface anaphora: A study of null complement anaphora and stripping/bare argument ellipsi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 Etxepare, R. & M. Uribe-Etxebarria.(2005), “In situ wh-phrases in Spanish: locality and quantification”, H. Obenauer(ed.), *L'architecture propositionnelle: La syntaxe de la périphérie gauche special issue of Reserches Linguistiques de Vincennes*, vol. 33, Presses Universitaires de Vicennes, Saint Denis, pp. 9-35.
- Ginzburg, J. & I. Sag.(2000), *Interrogative investigations: The form, meaning and use of english interrogatives*, CLSI publications.
- Grosu, A.(2006), “An amalgam and its puzzles”, H-M. Gartner et al(eds.), *Between 40 and 60 puzzles for Krifka*.
- _____(2008), “On the pre-theoretical notion ‘phrasal head’: Ignoring the left periphery is always at your own risk”, Ms, Tel Aviv University, To appear in *Interface properties: edges, heads and projections*(eds.), Anna-Maria di Scullio & Virginia Hill Amsterdam: John Benjamins.
- Guimaraes, M.(2004), “Derivation and representation of syntactic amalgam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 Hankamer, J. & I. Sag.(1976), “Deep and surface anaphora”, *Linguistic Inquiry* 7, pp. 391-428.
- Hernanz, M. L. & J. M. Brucart.(1987), *La sintaxis*, Barcelona: Crítica.
- Hualde, J. I.(2000), “Intonation in Spanish and the other Ibero-Romance Languages: overview and status questions”, Carolina Wiltshire and Joaquim Camps(eds.), *Romance Phonology and Variation*, Amsterdam: Benjamins, pp. 101-116.
- Hualde, J. I., A. Olarrea, A. M. Escobar, & C. E. Travis(2001), *Introducción a la lingüística hispánic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wang, J.(1982), “Logical relations in Chinese and the theory of grammar”, Doctoral Dissertation, MIT, Cambridge, Mass.
- Kayne, R.(1994), *The antisymmetry of syntax*, Cambridge MA: MIT Press.
- Cluck, M.(2011), “Sentence Amalgamatio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Groningen.
- Lakoff, G.(1974), “Syntactic amalgams”. Papers from *the 10th regional meeting of the Chicago Linguistic Society*(eds), M. Galy et a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p. 321-344.
- Lasnik, H.(2001), “When can you save a structure by destroying it?”, M. Kim & U. Strauss(eds.), *Proceedings of the North East Linguistic Society* 31, Amherst, MA: GLSA Publications, pp. 301-320.
- Lobeck, A.(1995), *Ellipsis: Functional heads, licensing, and identific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erchant, J.(2001), *The syntax of silence: Sluicing, islands, and the theory of ellipsi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2004), “Fragments and ellipsis”, *Linguistics and Philosophy* 27, pp. 661-738.
- _____(2005), “Revisiting syntactic identity conditions”, Paper presented in Workshop on ellipsi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Munn, A. B.(1993), “Topics in the syntax and semantics of coordinate structures”,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Maryland.
- Nevins, A.(2008), “Sluicing # Stripping: Evidence from P-Stranding”, Paper presented at The 3rd Annual Moscow Student Conference on Linguistics, Moscow, April 2008.
- Olarrea, A.(1996), “Pre- and Postverbal Subject Position in Spanish: A Minimalist Account”,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 _____(2012), “Word order and information structure”, Hualde, I. et al(eds.), *The*

- Handbook of Hispanic Linguistics*, Blackwell Publishing, pp. 603-628,
- Ortega-Santos, I., M. Yoshida. & C. Nakao.(2014), “On ellipsis structures involving a wh-remnant and a non-wh remnant simultaneously”, *Lingua* 138, pp. 55-85.
- Pesetsky, D. & E. Torrego.(2001), “T-to-C movement: Causes and consequences”, Michael Kenstowicz(ed.), *Ken Hale: A Life in Language*, Cambridge, Mass.: MIT Press, pp. 355-426.
- Reinhart, T.(1991), “Elliptic conjunctions-non-quantificational LF”, Asa Kasher(ed.), *The Chomskyan turn*, Cambridge Mass: Blackwell, pp. 360-384.
- Rizzi, L.(1990), *Relativized Minimality*, Cambridge, MA: MIT Press.
- van Riemsdijk, H.(2006), “Grafts follow from merge”, Mara Frascarelli(ed.), *Phases of interpretation*,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Vol. 91, Mouton de Gruyter, pp. 17-44.
- Ross, J.(1967), “Constraints on variables in syntax”, MIT Doctoral Dissertation.
- _____(1969), “Guess who?”, R. Binnick *et al*(eds.), *Chicago Linguistic Society (CLS) 5*, University of Chicago, Chicago, Illinois: Chicago Linguistic Society, pp. 252-286.
- Shim, S-W.(2009), “Spanish does not have cleft sentences”, *Revista Iberamericana* 20-1, pp. 285-310.
- Torrego, E.(1984), “On inversion in Spanish and some of its effects”, *Linguistic Inquiry* 15, pp. 103-129.
- Tsubomoto, A., & J. Whitman.(2000), “A type of head-in-situ construction in English”, *Linguistic Inquiry* 31, pp. 176-183.
- Uribe-Etxebarria, M.(2002), “In situ questions and masked movement”, *Linguistic Variation Yearbook* 2, pp. 259-303.
- Valmala, V.(2009), “On the position of central adverbial clauses”, *ASJU XLIII*, 2009, pp. 951-970.
- Yoshida, M., Nakao, C. & Ortega-Santos, I.(2015), “The Syntax of *Why*-Stripping”,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33:1, pp. 323-370.
- Zubizarreta, M. L.(1999), “Word order in Spanish and the nature of nominative Case”, Johnson, K. & I. Roberts(eds.), *Beyond Principles and Parameters*, Dordrecht: Kluwer, pp. 223-250.

정 원 석

경희대학교
alex-7554@hotmail.com

논문투고일: 2019년 02월 25일
심사완료일: 2019년 04월 11일
게재확정일: 2019년 04월 29일

Pedro ha terminado el trabajo no sabemos cómo: is it just another instance of clausal ellipsis or existence of a non-canonical adjunct?

Wonsuk Jung

KyungHee University

Jung, Wonsuk(2019), “*Pedro ha terminado el trabajo no sabemos cómo*: is it just another instance of clausal ellipsis or existence of a non-canonical adjunct?”,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30(1), 61-90.

Abstrac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a non-compositional sentence like *Pedro ha terminado el trabajo no sabemos cómo* in which on the surface there seem to be two subjects and two predicates in a simple sentence. According to Borgonovo(2011), this kind of sentences does not involve any explicit marker showing that either two clauses are coordinated or one clause is subordinated into the other, so they seem to violate the well-known principle of compositionality in a simple sentence. For this reason, Borgonovo explores the hypothesis that the incomplete form *no sabemos cómo* which appears at the end of the sentence mentioned above is indeed a constituent and could be considered as an instance of a *wh*-adverbial phrase. In this paper, however, I argue that what we see in the aforementioned sentence is a sort of clausal ellipsis which involves a bi-clausal rather a mono-clausal structure. Concretely, I propose that such kind of elliptical sentences comes as a result of a combination of two clausal ellipses, namely sluicing and *why*-stripping. This bi-clausal analysis plus PF-deletion is more simple and adequate as far as empirical data is concerned. In conclusion, the incomplete clause shown in the sentence mentioned above is derived from PF-deletion, just like other instances of clausal ellipsis.

Key words The Principle of Compositionality, Adjunct, Clausal Ellipsis, Sluicing, *Why*-Stripping